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1-32
<https://doi.org/10.29212/mh.2018..10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러시아함정 야꾸트호의 울릉도 조사의 과정과 내용(1903)

김영수*

1. 머리말
2. 일본과 한국이 바라본 러시아함정의 울릉도 조사과정
3. 1903년 러시아탐사단의 울릉도 조사와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4. 맺음말

1. 머리말

러시아 해군부는 19세기 후반 한반도 해양 탐사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략적 해양 거점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러시아 해군부는 서해에서 여순-진남포-제물포를 연결하는 거점, 남해에서 거제도-마산포,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원산-울릉도를 연결하는 거점을 중시하였다.

*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교수

1910년 이전 한국을 둘러싼 바다의 정규 항로는 3개 개설되었다. 러시아 세벨로프선사(蒸氣船社),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 오사카상선회사(大版商船會社)의 항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항로는 상해-제물포-부산-원산-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월 1회의 정기운항이었다. 두 번째 항로는 15일마다 고베-나가사키-부산-제물포-지부(芝罘)-여순항(旅順港) 등을 운항하였다. 세 번째 항로는 고베-시모노세키-부산-원산-블라디보스톡을 월 2회 통과하였다.¹⁾

그만큼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해를 둘러싸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인구와 물류가 이동하였고, 러시아는 동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동해의 섬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 해양 탐사를 기반으로 전략적 해양 거점을 구상하였는데, 동해에는 블라디보스톡-원산-울릉도를 연결하는 해양 거점을 중시하였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러시아 사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 때문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가 울릉도를 조사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한 적이 없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 직전까지 본격적으로 울릉도를 탐사하였다. 그것은 동해의 군사적 요충지로 울릉도를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울릉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선박, 나가사키 등에서 올라오는 일본 선박, 동해로 진입한 서양 선박 등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1899년 러시아 장갑 순양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는 울릉도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였다.

1900년 4월 러시아 수송선 예르마크호(Ермак)는 동부 대양에 대한 지리적 탐험 과정에서 울릉도를 지나갔다. 수로학자들은 양호한 기상을 이용해서 천문학적 관찰과 섬의 위치를 명확하게

1) 까를로 로제티, 서울학연구소 역, 『꼬레아 꼬레아니』(서울: 숲과나무, 1996), 371쪽.

확인하였다. 울릉도는 동쪽으로부터 약 4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²⁾

그 후 러시아 해군은 1901년 러시아 포함 까레예즈호(Корея II), 1903년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Якут) 등을 통해서 울릉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행하였다.

1903년 9월 러시아의 울릉도에 대한 조사는 ‘울릉도’(Остров Дажелет)라는 제목으로 ‘동방학소식’(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이라는 잡지에 1904년 게재되었다. 러시아 선박의 방문 사실을 기록한 인물은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였다. 당시 통역을 담당한 레베제프는 블라디보스톡 동방대학교 소속 3학년이었다.³⁾ 레베제프에 따르면 1860년대 오페르트(Оперт)는 다줄레(Dajalet, Dagelet) 섬이 비옥한 토양으로 유명하다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1904년 오페르트의 문헌을 비롯한 서양의 울릉도 탐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⁴⁾

기존연구는 1900년 초 러시아의 울릉도 조사에 대한 러시아 문헌을 발굴한 적이 없었다.⁵⁾ 이 논문은 우선 레베제프의 ‘울릉도’ 조사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국과 일본 사료를 보강하여 러시아의 1903년 울릉도 조사에 관한 사실 관계를

2) Глушков В.В. История военной картографии в России (XVIII - начало XX в.). М., 2007. С.373 ; Глушков В.В. На островах уллындю и докд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М., 2018. С.61.

3)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3.

4)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1.

5) 다만 기존 연구는 1903년 9월 러시아함선의 울릉도조사에 대해서만 한국과 일본 자료에 기초하여 간략하게 다루었다. 김호동은 러시아와 일본의 첨예한 대립이 1903년 울릉도에서도 전개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고, 홍정원은 심홍택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 벌목과 경찰서 주재 사실에 대해 러시아 측이 한국정부를 오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하였다.(김호동, 「개항기 울도군수의 행적」, 『독도연구』 19호 (2015), 31-32쪽 ;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논문 (2016), 204-206쪽)

복원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이 울릉도를 주목한 이유를 추적할 것이다.

2. 일본과 한국이 바라본 러시아함정의 울릉도 조사과정

가. 1899년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의 울릉도 조사

1899년 11월 러시아태평양함대 소속 장갑 순양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는 울릉도에 도착하여 울릉도의 지형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울릉도 현지 조사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신문들은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1899년 11월 14일자 독립신문에 따르면 러시아태평양함대 ‘중가로니 모후호’⁶⁾는 10월 26일 ‘포럼 샹덕항’을 떠나서 울릉도에 도착하여, 울릉도 거주 일본인을 관찰하고 11월 7일 마산포로 출발하였다.⁷⁾

1899년 11월 27일자 제국신문에 따르면 일본인은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서 삼림을 불법으로 벌목하였다. 울릉도 불법 거주 일본인은 11월 3일 천장절(天長節)을 경축하며 일본 국기를 내걸었다. 러시아 군함은 11월 3일 울릉도에 정박하고 해군 30명

6) 독립신문은 ‘중가로니 모후호’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당시 동청철도 소속 우편선 ‘송가리호’(Сунгари, почтовое судно)가 있었다. 독립신문은 ‘송가리호’와 ‘중가로니 모후호’를 동일한 선박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독립신문에 보도한 러시아선박의 이동 날짜와 행적을 추적하면 ‘중가로니 모후호’는 바로 러시아군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였다.

7) “아라샤 함④. 이④샤 동양 함④ 중가로니 모후호가 十月二十六일에 포럼 샹덕 항에서 떠나 울릉도에 귀항 하야 히도에 잇口 일본 사,들의 동작을 관찰 하고 七일에 마산포로 향 하여 출발 하얏다더라.”(『독립신문』, 1899.11.14.) 장갑 순양함(бронепалубный крейсер).

이 상륙하였는데, 러시아해군은 일본 국기를 훼손하면서 울릉도를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라고 말하였다.⁸⁾

1899년 12월 5일자 황성신문은 러시아군함 ‘고로니호후호’(아드미랄 꼬르닐로프)의 울릉도 조사에 관한 조선신보(朝鮮新報)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는 임무관(林務官) ‘가디니후’⁹⁾(1899년 함장은 빼뜨로프 И.И.Петров)를 포함한 30여명(三十餘名)의 육군사관(陸軍士官)이 승선하였다. 아드미랄 꼬르닐로프는 원산을 거쳐 부산에서 마산공사(馬山工事)를 맡은 주한 러시아공사관 부속(附屬) 측량기사(測量技師) 막시모프,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해군기사(海軍技師) ‘안트레프스랏프짜지’를 탑승시켰다. 러시아해군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요해(要害)와 육면(陸面)의 전부를 정밀히 답사하고 측량하였다. 조선신보는 러시아해군이 울릉도에 병영을 건축하고 수뢰기지(水雷營) 건설을 계획하면서,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라고 추정하였다.¹⁰⁾

8) “우리나라 울릉도는 개항하지 아니한 섬인데 토지가 고옥함을 인연하여 일본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가 사는데, 삼림을 임의로 작벌하며 생각되는 말은 이와 말 하였거니와, 이 섬에 들어가 사는 일본 사람들이 이달 삼일에 자기 나라 천장철을 경축 하노라고, 일본 국기를 세웠더니 아라사 군함이 그날 울릉도에 정박하고 삼십명이 상륙하여 일본 사람들이 세운 기를 부시고 또한 무삼 경계를 인연 함인지, 이 섬은 아라사국에서 점령한 땅이라고 떠들었다더라.”(『帝國新聞』, 1899.11.27.)

9)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 함장은 다음과 같았다.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Е.И.Алексеев 1-й (17.11.1886 - 09.09.1891);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М.И.Ельчанинов (09.09.1891 - 10.01.1894);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П.Н.Вульф (10.01.1894 - 16.10.1895);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П.П.Молас 1-й (16.10.1895 - 09.06.1897); капитан 1 ранга С.С.Черкас (09.06.1897 - 07.06.1899);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И.И.Петров 1-й (07.06.1899 - 18.04.1900);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Н.А.Матусевич 1-й (18.04.1900 - 06.08.1900);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А.Т.Тарасов (06.08.1900 - 06.09.1900);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П.Ф.Нельсон-Гирст (06.09.1900 - 25.10.1904);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К.П.Арнаутов 1-й (25.10.1904 - 25.04.1905)(<https://forum.worldofwarships.ru>)

10) “鬱陵島の 俄國經營, 朝鮮新報에 하엿스되 鬱陵島에 對한 俄國方針에 就하야 今에 可信한 情報를 據한즉 俄國軍艦고로니호후 号口 林務官 가디니후 及三十餘

1899년 12월 8일자 제국신문에 따르면 원산주재 영사관 다카오(高雄) 서기생(書記生)은 울릉도에 파견되어 울릉도 불법 거주 일본인의 추방을 직접 지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일본인이 행장을 수습하여 철수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제국신문에 따르면 11월 3일 러시아장교는 일본인 거류지를 시찰하였는데, 러시아 해군은 일본인이 천장절 행사에 국기를 내걸고 경축하자, 일본 국기를 모욕하고 일본인을 위협하였다. 제국신문은 러시아해군이 울릉도감을 결박하고 문초했다고 보도하였다.¹¹⁾

하지만 울릉도감의 보고에 따르면 울릉도감(鬱陵島監)을 결박했다는 사실은 없었다. 러시아 군함이 섬 안에 와서 정박하고 있으면서 출입허가(本島許給)에 관한 훈령(訓令)을 보여주자, 울릉도감 배계주는 전후 사정(前後事狀)을 러시아군함에게 알려주었고, 러시아군함이 한마디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다고 보고하였다.¹²⁾

1899년 12월 25일자 황성신문은 러시아군함의 울릉도 상륙

名의 陸軍士官을 率하고 該地에 赴할 次로 먼저 元山에 寄港하여 釜山에서 更히 馬山工事に 執掌하던 京城俄公館附屬測量技師 마키시모후(*막시모프) 及海蔘威에서 來한 海軍技師 안트레쯔스랏프씨를 搭乘하고 鬱陵島로 赴하여 上陸한 後에 海濱의 要害及陸面의 全部를 精密히 踏查測量하였□□ 畢竟 該嶋內에 兵營을 築設하고 別히 水雷營을 建設할 터이라□□ 目下 其場所를 選定하□□ 中이라더라.”(『皇城新聞』, 1899.12.5.)

- 11) “울릉도에 삼림보호권리를 아라사 사람이 었었는데 일인이 그 섬에 잇는자를 것 어가라고 조회 하였다니, 일본서 원산 영사관에게 기별하여 서기생 고도씨를 그 섬에 보내어 일인을 물러 가라고 효슈하대, 일인들이 행장을 수습하여 더러는 돌아갈 즈음에 80여명은 앞서 마감하노라고 두류하더니, 지난달 2일(*3일)아라사 군함이 무관과 통변하는 일본인 1명을 도박(*포박) 하였는데, 여러번 방포하여 위협을 보이고, 우리나라 도장을 결박하여 문초하며 병영(*병장)으로 하여금 일인의 거류지를 엄히 시찰 하더니, 그 이튿날은 일본 천장절이라 그곳잇는 일인들이 국기를 걸고 경축 하는 거슬 아라사 사람이 그 국기를 대하여 욕설을 무수히 하나 통병이 만류하여 다행이 무사 하였다 하고, 또 의기가 양양하여 일본 사람들을 공갈 하며 장차 선창을 싸흘 모양 갖다더라.”(『帝國新聞』, 1899.12.8.) *표시는 오류를 정정함.
- 12) “適其時에 俄國軍艦이 來泊于嶋中하고 本島許給의 訓令을 輪示하고 故로 并將前後事狀하고 知照한즉 俄國軍艦이 有若恬然하고 無一言問答而退하고□□.”(『皇城新聞』, 1900.3.10, 鬱陵島監의 公報)

관련 나가사키 영자보(長崎英子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나가사키 영자보(長崎英子報)는 러시아인이 울릉도에 1병영(一兵營)과 1수뢰분치소(一水雷分置所)를 설치한다고 보도하였다.¹³⁾

울도시찰위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도 1899년 11월 러시아의 울릉도 정박에 관한 정보를 대한제국 정부에게 보고하였다.

우용정에 따르면 1899년 10월 1일(양력11.3) 러시아군함은 남양동 포구에 정박하고, 장교(將官) 1인(員), 통역(通事) 1인(人), 해병(兵丁) 7명(7名)이 상륙하였다. 러시아장교는 울릉도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울릉도를 정찰하였다. 러시아군함은 8일 동안 울릉도에 정박하면서 규목(槻木, 물푸레나무) 1 그루를 75량을 주고 일본인에게 구매하였다. 러시아군함은 1900년 3월에 다시 오겠다고 울릉도를 떠났다.¹⁴⁾

결국 러시아군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는 1899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울릉도의 지형을 파악하고, 해군 수뢰 분소 설치를 대비한 조사를 실행하였다. 러시아군함의 명칭에 대해서 독립신문은 ‘증가로니 모후호’이고 황성신문은 ‘고로니호후호’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러시아태평양함대의 동해 훈련에서 러시아 함정의 이름은 ‘증가로니 모후호’가 아닌 ‘고로니호후호’만 기록되었다. 따라서 고로니호후호 즉 ‘아드미랄 꼬르닐로프’ 함정이었고, 독립신문의 오보였다.

나. 1903년 야꾸뜨호의 울릉도 조사

1903년 10월 7일 부산주재 영사 시대하라 키쥬로(幣原喜重

13) “鬱陵島에 俄人. 長崎英子報를 據한즉 울릉도에 아인이 一兵營과 一水雷分置所를 方設한다는 대 차인은 東京某報官通信員의 函致한 배니 其詳細論列한 것으로 觀하건대 其可信處한 것으로 관하건대 一種風說과는 有異하더라 하얏디.”(『皇城新聞』, 1899.12.25.)

14) 『各觀察道案』,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 一三(奎章閣, 7990-1)

郎)는 경부(警部) 아리마 다카노부(有馬高孝)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9월 2일 러시아 군함 야꾸트(Якут)의 울릉도 방문에 관한 보고서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에게 제출하였다. 앞서 울릉도 주재 경부 아리마는 1903년 9월 12일 부산주재 영사 시 데하라에게 러시아 선박의 울릉도 방문을 보고하였다.¹⁵⁾ 이미 일본은 1902년 2월 울릉도의 일본인 보호 구실을 명분으로 일본 경찰서(日本警察署)를 울릉도 도동에 신설하였고, 부산 주재 일본 경찰서 소속 경부(警部) 1명과 순사 2명이 울릉도에 파견되었다.¹⁶⁾

아리마(有馬高孝)는 1903년 9월 러시아 수병의 울릉도 상륙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울릉도 주재 경부(警部) 아리마는 러시아 군함 야꾸트(Якут)호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울릉도로 내항했다고 추정하였다. 아리마에 따르면 1903년 9월 2일 오전 11시경 포 2문을 갖춘 러시아 선박 야꾸트(Якут)호의 러시아 사관(士官) 2명과 수병 19명이 울릉도 남양동(南陽洞)에 상륙하였다. 9월 2일 상륙한 러시아 사관과 수병은 남양동 해안에서 약 10정(町)의 산중턱 주변에서 야영을 하면서 울릉도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러시아 사관은 러시아가 울릉도의 삼림벌채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인이 일본인의 삼림벌채를 금지시키지 않는 것을 심흥택에게 힐문하였다. 그러자 심흥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미 금년 4월에 취임할 때 삼림벌채에 대해서 울릉도 일본 경부에게 교섭하였다. 그런데 일본 경부가 직접적으로 응하지

15) “한국 鬱陵島의 南陽洞부근에서의 러시아 군함의 거동에 관해 지난달 12일자로 울릉도 주재 警部 有馬高孝로부터 소관 앞으로 보고가 있었사오니 別紙 요령을 摘錄한 뒤 보고 말씀 드립니다. 추후에 본문은 本省에도 같은 모양으로 보고했습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20), 1903년 10월 7일, 各館來信 (7) 韓第41號 「러시아 수병의 鬱陵島 상륙에 관한 건」, 在釜山 領事 幣原喜重郎一特命全權公使 林權助)

16) 『帝國新聞』, 1902.3.1.

않았다. 대한제국 정부에게 위의 내용을 보고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명령을 접하지 않았다.” 주한 일본공사관기록은 심홍택에 대한 러시아의 위압적인 행동이 부각되었는데, 러시아 사관이 문서를 요구해서 심홍택이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으로 기록되었다.

1903년 9월 2일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고 포 2문을 갖춘 선명(船名)을 알 수 없는 기선 1척이 나타났다. 러시아 군함은 러시아 사관 및 수병의 복장을 한 자들을 태우고 울릉도 도동(道洞)의 일본 경찰관주재소에서 약 4리가 떨어진 남양동(南陽洞)에 내항하였다. 그 후 9월 11일 오후 6시경 출발하였다. 그 동안 러시아 선박은 연안을 서서히 항해하면서 울릉전도(全島)를 항해(周航)하였다.

9월 2일 오전 11시경 러시아 사관 2명과 수병 19명은 남양동(南陽洞)에 상륙한 다음, 약 10정(町)의 산중턱 주변에서 야영하였다. 러시아 해군이 5~6일 체류하면서 울릉도의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9월 11일 러시아 사관 2명은 군속(軍吏) 1명과 수병 16명을 거느리고 남양동 방면에서 육로로 도동(道洞)의 대한제국 관아에 와서 군수 심홍택(沈興澤)과 대담하였다. 러시아인은 일본인 소유의 느티나무와 그 밖의 목재를 촬영하였다. 사관 1명은 그곳에서 즉시 승선하고, 그 밖의 해군(兵員)은 육로를 이용하여 남양동으로 철수하였다.

울릉도 주재 경부(警部) 아리마는 러시아 사관과 울도군수 심홍택과의 대화를 기록하였다. 아리마는 러시아해군의 강요에 의해서 심홍택이 진술 내용을 제출했다고 보고하였다.

9월 11일 러시아 사관 2명과 16명의 수병은 남양동 방면에서 육로로 도동에 있는 군수 심홍택과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러시아 사관은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이 러시아에 있다”며 “왜 울릉도의 삼림 벌채를 금지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심홍택은

“1903년 4월 취임할 때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에게 교섭했지만, 일본경찰이 직접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아리마는 “러시아 수병은 회담 중에 칼을 휴대하였고 러시아 사관은 심흥택에게 진술 내용의 문서 작성(書證)을 강요하였고, 심흥택은 이에 응하는 것 같았다”고 기록하였다. 러시아 선박 야꾸트(Якут) 호는 울릉도 연안을 항해하며 울릉도 전역을 탐사하다가 9월 11일 오후 6시경 출발하였다.¹⁷⁾

1903년 11월 28일 강원도관찰사 김정근(金禎根)은 러시아(俄國)와 일본(日本)이 울릉도 삼림 벌목 관련 보고서를 외부대신 임시서리(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에게 제출하였다. 강원도관찰사 김정근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러시아해군의 울릉도 조사를 조선 외부에 보고하였다. 김정근은 외부(外部)가 주한 일본과 러시아 공사에게 조회하여 양국(兩國) 모두 울릉도(鬱島郡) 벌목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

심흥택(沈興澤)에 따르면 음력 1900년 7월 12일(양력9.3) 러시아병선(兵船)의 병정(兵丁) 23명은 울도군의 남양포(南陽浦)로 들어와 지형(地形)을 탐지하고 사진(寫眞)을 찍은 이후 울도군수를 방문하였다. 러시아 사관은 한국정부가 울릉도의 삼림(森林)을 러시아(俄國)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일본인(日本人)이 벌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질책하였다.

심흥택에 따르면 러시아병선은 남양포 동구에 와서 대관(隊官) 1인과 부관(副官) 2인이 병정 23명을 이끌고 내려와 산 위를 올랐고, 땅을 측량하거나 나무 수를 계산하고 산천의 지형과 각 포구를 돌며 사진을 찍었다.

러시아 대관(隊官)은 7월 19일(양력9.10) 오시(午時)에 병정 27명을 이끌고 울도군수 심흥택을 방문하였다. 러시아문서에 따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20), 1903년 10월 7일, 各館來信 (7) 韓第41號 「러시아 수병의 鬱陵島 상륙에 관한 건 別紙 1 러시아 수병의 鬱陵島 상륙 보고서 요지」, 在釜山 領事 幣原喜重郎 一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르면 그 대관은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였다.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는 질문하였다.

“이 섬의 목재는 5년 전 우리 회사에서 귀 정부와 조약으로 얻기를 청했으나 이 섬의 삼림은 러시아의 물건입니다. 타국인이 삼림을 벌목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일본인이 이리 심하게 베어 가는 것입니까?”

“한국정부가 일본인에게 벌목을 허가한 문서가 있습니까? 일본 정부의 문서가 있습니까?”

울도군수 심홍택은 “모두 없습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까르제프가 질문하고 심홍택이 답변하였다.

“일본인의 벌목을 어떻게 금지하겠습니까? 일본 경찰서가 울릉도에 주둔하고 있으니 한국과 일본 정부의 조약이 있습니까?”

“본관은 조약의 유무를 알지 못하며, 부임한 이후 일본 경찰서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의 벌목을 금지하지 않은 사실, 일본 경찰서가 주둔하는 사실 등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조약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글로 써서 주시길 바랍니다.”

심홍택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글(書)로 써서 주겠다”고 답했지만 까르제프는 “윤선이 떠나려 하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고 독촉하였다.

심홍택은 까르제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글로 써서 주었다. 심홍택은 러시아해군의 항의를 근거로 일본인의 불법 울릉도 삼림 금지를 일본 경부에게 촉구할 수 있었다.

“1903년 3월 23일(음력) 부임한 이후 일본 경찰서가 본군 동포에 주둔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정부와 조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본군에 주둔한 이상 만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 경부 아리마 다카요시(有馬高孝)를 만났습니다. 본관이 삼림을 금지시키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자, 아리마는 ‘피차

정부의 문서가 없으니 금지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심흥택이 까르제프에게 글을 써주자, 러시아해군은 포위를 풀고 도동포로 내려가서 지형을 사진 찍은 이후 남양동으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떠났다. 심흥택은 대한제국 내부에게 러시아의 울릉도 조사 관련 보고서를 전라도인 박양(朴陽)의 선편에 부쳐 보냈다. 하지만 심흥택은 8월 22일(음력) 선박이 바다 속으로 전복되어 보고서가 사라져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심흥택은 또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에 보냈다.¹⁸⁾

- 18) “鬱島郡守沈興澤報告書內開에 本年七月十二日 俄國兵船一隻이 來泊本郡南陽浦洞口 而隊官一人副官二人이 率兵丁二十三名下陸^ㄱ야 仍爲上山 而或尺量地段^ㄴ며 或計數木根^ㄷ고 山川地形과 各浦를 巡環寫眞이더니 十九日午時에 率兵丁二十七名^ㄹ고 環圍本官職所 而隊長이 問曰 此島木料는 五年前我國會社에서 貴政府와 約條^ㄷ고 請得^ㄱ앗시니 此島森林은 我國之物也라 他國人은 不可斫伐이거늘 如何日人之伐木이 甚多也 其伐木이 有貴政府許可文字乎아 有日本政府文字乎아 有我國會社文字乎아 本官曰皆無로라 彼曰其伐木을 何不禁止乎며 且日本警署가 駐此^ㄱ앗시니 有貴政府條約否아 本官曰其條約有無는 不知 而本職赴任後 聞知駐此也로라 彼曰然則其伐木不禁之由와 日警署駐此之貴政府條約有無^ㄴ 明書給我也^ㄷ라 本官이 尋思無路^ㄱ야 答以爲一二日後書給云 則彼曰輪船이 方發^ㄴ니 不可久留로라^ㄷ고 督使非輕故로 乃以實事書給曰 癸卯三月二十三日赴任後 聞日警署가 來駐本郡道洞浦云 而其與我政府約條有無는 未知나 然이나 既駐本郡에 不可無一次相見故로 往見日警署有馬高孝後에 以森林禁斷之意로 言之則答云 無彼我政府文字^ㄴ니 難以禁止故로 以此意報告于我國內部耳라^ㄷ고 以此書給 則彼乃撤圍率兵^ㄹ고 仍下道洞浦^ㄱ야 寫眞地形後 還去南陽洞 乘船以去^ㄴ앗스오니 此之舉措가 實爲不安이옵기 卽修報告^ㄷ와 付送于羅人朴陽船便矣러니 今八月二十二日에 船便得聞 則該船이 海中覆沒^ㄱ와 同報告가 俱爲闕失故로 茲更報告等因을 據^ㄴ와 茲에 報告^ㄷ호오니 照亮^ㄱ신후 移照日俄兩公使官^ㄴ야 以爲禁斷케^ㄷ하시을 爲望.”(報告書第六號, 光武七年(1903)十一月二十八日, 『江原道來去案』第一冊, 『各司騰錄』 28, 江原道篇 2, 江原道觀察使金禎根一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宮內府特進官李夏榮, 59-60쪽(奎17985) 1903년 12월 1일 외부는 울릉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벌목금지에 대한 강원도관찰사의 보고서를 기록하였다. “江原觀察報告 鬱島郡守報稱 俄兵船一隻 來泊本島南陽浦 隊官一人 副官二人 率兵圍官探問日人伐木 日警署駐此裏由 尺量地段 計數木株 寫眞地形而去等情 移照日俄兩館 發訓禁斷爲望. 江原觀察報告 鬱島郡守報開 該島所住日警署及日人伐木侵土之 有難禁斷等情 移照日館爲望.”(交涉局, 光武七年十二月一日, 『外部日記』 7冊, 入直 李範奭 金瑞圭(奎17841)
- “鬱島郡守 沈興澤氏의 報告를 據^ㄱ 則 陰七月十二日에 俄國兵艦 一隻이 本郡南陽洞浦口에 來泊^ㄴ야 隊官 一名과 副官 二人하 率兵丁 二十三名^ㄷ고 下陸^ㄹ야

1903년 12월 5일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金禎根)은 러시아인의 울릉도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외부대신임시서리(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에게 제출하였다.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울릉도 군수 심홍택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러시아삼림회사(森林會社)와 한국정부 사이 울도군(鬱島郡)에 대한 조약(約條)의 사실 확인을 외부에 질의하였다.

심홍택에 따르면 러시아병선(俄國兵船)은 9월 3일 남양포(南陽浦)에 정박하여 지형을 측량(尺量)하고 수목을 계산(計數)하였다. 9월 10일 러시아병정(兵丁) 27명은 심홍택을 둘러싸고 대화하였다. 러시아 대관(隊官)과 병정(兵丁)은 도동포(道洞浦)로 내려가 지형의 사진(寫眞)을 찍고 남양동(南陽洞)에서 승선해서 떠났다.

까르제프 대위(隊官)가 심홍택에게 물어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5년전 러시아회사(我國會社)가 한국정부와 조약(約條)을 체결(請得)하여 울릉도의 삼림(森林)이 러시아 소속인데, 일본인의 불법 벌목(伐木)과 일본경찰서(日警署) 주차(駐此)에 관한 정부 약조(政府約條)의 유무여부(有無與否)를 알려 달라.”

김정근(金禎根)은 일본인이 가옥 설치(設幕構屋)를 외부(外部)에 요청(報明)한 사실이 있었는지, 한국정부와 러시아와의 울도군(鬱島郡) 목재(森林會社)에 관한 약조(約條)가 실제 있었는

仍爲上山^호야 或量地段^호며 木株를 計數^호며 山川地形과 各浦를 巡環模寫^호야 고 同十九日에 隊官이 率兵丁 二十七名^호고 到道洞本官直所^호야 四面環圍^호고 隊長이 問^호되 此島木料^호 五年前 俄國會社가 貴政府에 約條請得^호이 有^호 則 此島森林은 俄國之物也라 俄國人外他國人은 不可斫伐^호어○ 如何히 日人之伐木 이 甚多^호지 其伐木에 有貴政府許可文字乎아 有日本政府文字乎아 有俄會社文字 乎아 호야○ 本官曰 皆無라 호니 彼曰 其伐木을 何不禁止乎아 且曰 日本警部가 駐此^호니 有貴政府約條否아 本官曰 其約條有無 吾所未知나 本職이 赴任後에 聞知駐此^호라 호니 俄官이 以此도 詰迫^호다가 仍以發船以去^호야 矣^호더라.”(『皇城新聞』, 1903.11.17) 황성신문 기사는 심홍택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었다.

지 등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외부에 요청하였다.¹⁹⁾

일본문서는 러시아 해군이 9월 2일 도착하여 상륙했다고 기록되었고, 한국문서는 9월 3일 상륙하여 지형을 탐사했다고 기록되었다. 러시아함정의 항해 날짜를 고려하면, 러시아 해군이 9월

19) 江原道觀察使 金禎根의 第六十五號 報告書 內開 頃聞通川高城兩界長箭浦에 日人等이 設館이다인바 無論本他國호고 如非租界內 則外國人之賃房購屋은 法所當禁이온 況該浦가 本非租界約定之地 而如是營役은 揆以約章에 萬萬垂當故로 發訓該兩郡호야 以該基址가 或有京部認許而然인지 自郡不禁而私自營造인지 昭詳報來호고 亦卽禁斷之意로 措辭申飭이올고 另派巡檢호야 使之詳探이오며 且江陵郡 注文津은 本非通商口岸이거오 外人輪船이 每年 幾次次 來往貿易云者 亦非約章共守法意故 發訓該郡호야 該輪船之創自何年來往과 緣何事而來往을 詳探報來事申飭이올더니 通川高城江陵等郡報를 次第接閱호즉 通川郡長箭浦에 設館云者는 乃是訛傳也오 捕鯨幕段은 不過是藏置鯨肉之所 而暫欲權設이나 日人松尾言內에 亦知章程之所禁 則過冬後撤去이다호오며 日人森萬之新構十二間板屋은 且無認許之可據 而亦知章程所禁호고 將爲毀撤云이오나 蓋幕與屋이 俱是年前認許俄人之基址外 則其所禁斷은 恐不可已이오며 江陵郡注文津段 荻浦丸輪船이 七月九日에 販載幾魚호고 出往釜山이러가 同月十三日에 回還元山 而他無所幹이올고 其外口 更無外國船來往이다이올기 以不通商口岸에 輪商船交易이 亦是條規故로 依通商約條禁飭之意로 另加題飭于該郡이오며 通川高城兩郡所報成冊을 纔已轉報于外部故로 該成冊을 謄本호와 茲에 報告호오니 查照後 移照外部호와 俾爲措處爲望等因과 連接第六十六號 報告書 內開 卽接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 則俄國兵船一隻이 七月十二日來泊本島南陽浦洞口 而隊官一人 副官二人 率兵丁二十三名 下陸 或尺量地段 或計數木根이다가 十九日率兵丁二十七名 圍環本官直所問曰 此島木料口 五年前 我國會社에서 貴政府와 約條를 請得호였스니 此島森林은 我國之物也라호오며 以日人伐木과 日警署駐此가 或緣政府約條有無與否를 明細給我호라고 問答호다가 彼乃撤圍率兵호고 仍下道洞浦 寫眞地形 而還去南陽洞 乘船以去호였스나 今此舉措가 實爲未安이오니 移照外部호와 使之知照於俄日兩館호야 以爲發訓禁斷에 極심을 爲望等因을 據查호은즉 高城通川兩郡交界에 日本人이 稱以藏置鯨肉호고 設幕構屋호는 事로 該府로서 先已報明于貴部이다이온즉 貴部措飭이 必有호시러니와 鬱島郡에 俄人이 來泊호야 本島木料를 該國森林會社에 我政府約條가 有호다호오니 該島森林도 政府認許가 果有호은지 茲以仰佈호오니 照亮後 一切示明호심을 爲要. (照會 第十八號, 光武七年(1903)十二月五日, 「內部來去文」 15, 議政府贊政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金奎弘一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李夏榮) 1903년 12월 10일 외부는 러시아삼림회사의 울릉도 삼림이권 획득 사실에 관한 내부의 조화를 기록하였다. “內部照會 江原道觀察使金禎根報告書內開 通川高城兩界長箭浦 日人等稱以藏置鯨肉 新構板屋 統已轉報于外部等因. 連接該觀察報告內開 俄船來泊鬱島郡 隊官稱本島木料 我國會社請得於貴政府 已有條約等情 該島森林 果有政府認許 照亮示明.”(交涉局, 光武七年十二月十一日, 『外部日記』 7冊, 入直 丁大有 方大榮(奎17841)

2일 도착해서 9월 3일 상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문서는 러시아 장교와 울도군수와의 대담을 9월 11일, 한국문서는 9월 10일 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러시아문서는 8일을 체류했다고 기록되었다. 9월 2일 도착을 기준으로 본다면 9월 10일 울도군수와 대담하였다.

일본문서는 심홍택과 면담한 러시아인은 러시아 사관 2명과 군속(軍吏) 1명과 수병 16명, 한국문서는 대관(隊官) 1인과 부관(副官) 2인과 병정(兵丁) 27명이라고 기록하였다. 러시아문서는 러시아 지휘관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 메르꾸셰프(В. А. Меркушев) 군의관,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 통역, 16명의 러시아 수병으로 기록되었다.²⁰⁾

결국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가 지휘한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Якут)는 1903년 8월 31일 블라디보스톡 출발, 9월 2일 울릉도 도착, 9월 3일 울릉도 남양포(南陽浦) 상륙, 9월 10일 도동에서 심홍택 면담 직후 출항하였다. 울릉도를 조사하고 심홍택을 면담한 인물은 러시아 장교가 2인, 통역이 1인, 수병이 16명이었다.

3. 1903년 러시아탐사단의 울릉도 조사와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가. 러시아 탐사단의 울릉도 조사

1903년 9월 2일 울릉도를 방문한 선박은 러시아 군사 수송선

20)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3.

야꾸트(Якут)호²¹⁾였고, 지휘관은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²²⁾였다. 이전 러시아는 1901년 울릉도의 삼림 탐사를 목적으로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를 파견하였다. 당시 파견된 선박은 러시아 포함 까레예쯔호(Кореец)였다.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는 1903년 또다시 울릉도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²³⁾

1903년 8월 중순 통역관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는 군의관 메르꾸셰프(В.А. Меркушев)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항구 책임자(начальник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порта) 제독 가우쁘트(Н.А. Гаупт) 제독의 초청을 받았다. 가우쁘트 제독은 러시아가 삼림채벌권을 획득한 울릉도(Дажелет)의 삼림탐사를 목적으로 조사팀을 파견하는데, 레베제프가 일본어 통역관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레베제프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부터 울릉도의 정보와 소식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레베제프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인이 일본어 회화를 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일본어와 한문에 능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3년 8월 18일(양력 8.31) 러시아탐사단은 군사 수송선 야꾸트(Якут)호를 타고 오전 4시 블라디보스톡에서 울릉도로 출발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게 짧은 일정이었지만 지휘관 까르제프와 군의관 메르꾸셰프의 경험과 열정으로 가장 높은 산봉우

21) 야꾸트호(Якут, Во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транспортное судно, 1887-1937)는 723톤이고 가로와 세로는 8.4 미터와 62.5 미터였다.

22) Виктор Андреевич Карцев(Карцов, 1868-1936). 1889년 흑해함대 해군 소위에 임관되었다. 1901년 포함 까레예쯔(Кореец)호의 어뢰장교로 활동하였다. 1903년부터 여순함대(Порт-Артурской эскадры) 소속 러시아 어뢰정(魚雷艇) 블라스뜨늬이(Властный)의 함장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 참가하였고,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주프랑스 대사관 해군무관(Морской агент)이었다. 1916년 러시아해군 부제독(вице-адмирал)이 되었다.

(http://w.histrf.ru/articles/article/show/kartsov_viktor_andrieievich)

23)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4. 포함(канонерская лодка)

리에 올랐고, 거대한 삼림을 헤치면서 울릉도의 전역을 탐사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²⁴⁾

러시아탐사단은 울릉도에 8일을 머물면서 성인봉을 등반하고 울릉도 전역을 탐사하였다. 또한 야꾸트호는 울릉도 전역을 순회했고, 매일 정오 남양포(南陽浦) 러시아탐사단의 임시 숙소에 도착하여 상호 연락할 수 있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자신들의 벌목작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일본인은 러시아탐사단이 울릉도를 방문하자 그 순간부터 울릉도의 벌목작업을 중단하였다.²⁵⁾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위치와 명칭을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나가사키 방면 307해리 떨어진 북위 37° 30′ 동경 130° 54′의 위치하였고, 원둘레가 25마일(약 40km)을 조금 넘었다”며 한국의 섬(Корейский остров)이라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명칭을 서양에서 ‘다즐레’(Дажелет, Dagelet), 일본에서 ‘마쓰시마’(소나무의 섬, Мацусима, остров сосен), 한국에서 ‘울릉도’(Уллындо)라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울릉도의 명칭은 산봉과 산등성 등의 산 전체를 뒤덮어서 건축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삼림에서 유래되었다. 1787년 프랑스 탐험대 라페루즈(La Perouse)호는 아스트로라비아(Astrolabe)호와 부술(Boussole)호 선단으로 이루어져, 한국의 북쪽 해안을 향해하던 중에 처음 울릉도를 발견하였다. 1851년 봄과 여름에 걸쳐 영국 선박 ‘악테온’(Acteon)호는 다즐레(о. Дажелет)섬을 탐사하였는데, 현지 식물을 채취

24)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3.

25)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С.163-174. Студента III-го курса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Е. Лебедева.

하던 식물학자인 윌포드(ботаник Вильфорд, botanist Wilford)가 승선하였다.

레베제프는 19세기 후반 영국과 러시아의 울릉도 탐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1883년(20년전) 영국인은 일본인들과 함께 울릉도에서 벌목했고 성인봉(Суимбон)에 등반하면서 산길의 암석들을 연구하였다.

1887년 세계일주 중 러시아 군함 비짜지(Корвет Витязь)호는 울릉도를 방문하고 전체 지도를 작성하면서 해안을 측량하였다.²⁶⁾ 함장은 러일해전으로 유명한 마카로프(С.О. Макаров)이었다. 비짜지호의 장교는 울릉도 방문 기간에 섬의 지형을 측량하고 촬영하였는데, 이후 빼제르부르크에서 지도가 발간되었다.²⁷⁾

미국인 미첼(Митчель, Mitchell)이 총 매출의 50%를 조선 정부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소유했다. 그 후 러시아인 브리네르(Бринер)가 순익에 25%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삼림채벌권이 베자브라조프(Безобразов)에게 넘어갔지만 일본인이 울릉도 삼림을 벌목하여 러시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위치, 탄생, 산맥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울릉도는 한국의 도서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유일한 섬이지만, 1000톤 이상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울릉도는 육지로부터 70 마일의 거리이고, 그리니치 동경 130° 54'라고 파악했다. 도동항(Тодо)은 울릉도의 동해안에 위치하고 북

26) 레베제프에 따르면 비짜지호는 다줄레(Dajalet, Dagelet)섬 북쪽에 위치하는 압초에 좌초해서 침몰하였다. 러시아는 그 압초를 '비짜지'(Скала Витязь)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비짜지호는 1893년 5월 원산항(порт Лазарева) 근처에서 압초에 부딪쳐 침몰했다고 알려졌다.

27) Глушков В.В. На островах уллындо и докд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М., 2018. С.60.

풍, 서풍, 서남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 최적의 기항지였다. 또한 레베제프는 선박과 구명정이 접근할 수 있는 항구가 자신들이 체류했던 꼬르께(Корке, 남양포)라고 주장하였다.²⁸⁾

“다즐레(Dajalet, Dagelet) 섬은 지층의 수직형 구조, 굳은 용암으로 형성된 수많은 암석, 화산섬에서만 볼 수 있는 극히 험난한 지형 등이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가 대략 1200 - 1500년 전에 형성된 화산섬이라며 그 증거로 산굴의 형성, 울릉도 삼림의 들레와 크기 등을 꼽았다.

레베제프는 나리분지(Нариколь)와 연결되는 울릉도의 산맥을 묘사하였다. 레베제프는 성인봉(Суимбон)이 안장의 머리모양이고 천두봉(Турибон)이 꼬리 모양이라고 기록하였다.

울릉도는 산림으로 덮여있으며 좁은 계곡들이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넓어지며 산과 산을 가르고 있었다. 나리분지(Нариколь) 산맥은 가장 높은 2개의 산봉인 성인봉(Суимбон, 3208 피트)과 천두봉(Турибон)을 중심으로 반경이 뻗어나가듯이 산의 등줄기가 퍼져나가면서 바다 쪽으로 내려 갈수록 낮아졌다. 모든 산은 정상에서 기슭까지 거대한 산림으로 덮여있었다. 성인봉(Суимбон) 정상에는 높지 않은 대나무와 야생포도 그리고 키가 작은 옴찌오(Омцио) 관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아래로 내려가면 마가목(馬價木)으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거대하고 우거진 산림으로 변모하였다. 바위들이 싸여있는 계곡 바닥으로 개울이 흐르고 산림이 없는 산등성이는 잡곡들이 재배되었다.

성인봉은 대략 원둘레 36사젠(сажень, 2.1336m)으로 작고 평평한 땅이 있었다. 성인봉은 높지 않은 대나무와 야생포도가 자생하고 있고, 주변과 바다를 관찰하기 편리하였다. 또한 성인봉

28)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5.

은 울릉도의 북쪽과 북서쪽 그리고 서쪽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성인봉은 천두봉(Турибон)에 가려져 있어서 남쪽을 관찰할 수 없다. 천두봉은(Турибон) 정상과 산등성이 모두 거대한 산림으로 덮혀있어서 주변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메르꾸셰프(В.А. Меркушев) 박사는 천두봉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섬의 남부를 촬영하였다.²⁹⁾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기후와 수목을 기록하였다.

울릉도는 8월부터 9월까지 가장 좋은 날씨이며, 10월부터 2월까지 눈이 내렸다. 레베제프는 울릉도가 “상쾌한 좋은 공기, 담수로 인한 충분한 수자원을 활용한다면 폐결핵환자의 치료에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삼림자원이 풍부하며 24종의 삼림이 분포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레베제프는 현재 울릉도의 “성인 양팔 길이에 5배 되는 '거목'을 찾을 수 없다”며 “계곡의 움푹 파인 곳에 방치된 '거목'의 넓은 나무판자나 그루터기만 남아있다”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거목의 흔적을 통해서 약탈자 일본인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기슭에서 정상까지 거목으로 덮여있는 산들이 지금은 일본인들의 도끼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일본인의 불법 벌목의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식물, 동물, 조류 등을 기록하였다.

울릉도민은 옥수수, 벼, 콩류, 감자, 양배추, 호박, 양과 등을 재배하여 먹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동물류에 대한 물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 한 마리가 셰스타코프(Шестаков)에서 8-10 루블하는데 비해서 울릉도에서는 60-70 루블이었

29)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СС.166-167.

고, 42파운드의 돼지 한 마리가 5 루블이었고, 중간의 염소 한 마리가 2-3 루블이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울릉도에 제비, 딱따구리, 참새, 비둘기, 까마귀, 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³⁰⁾

레베제프는 바다 앞에는 비교적 전복과 낙지가 풍부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류가 많지는 않다고 기록하였다. 울릉도 어류는 섬의 수심이 깊어서 물고기가 서식하고 번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레베제프는 섬의 앞바다에서 강치를 목격하였다.³¹⁾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의 음식도 기록하였다. 한국인은 옥수수, 콩, 호박 밭을 일궜다. 한국인은 갈매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갈매기를 잡아 털을 제거해 걸 껍질을 벗겨내고 소금이나 다른 양념 없이 꼬챙이 구이를 하였다.”³²⁾

나. 레베제프가 바라본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행정구역과 거주인원을 기록하였다.

울릉도는 강원도(Кан-ундо)에 소속하며 20개의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군수가 울릉도를 관리하였다. 울릉도 거주 한국인은 대략 2500명이고 560개의 가옥이 있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대략 180명 정도이며 62개의 가옥이 있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도동에 상주하는 일본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많은 일본의 배가 정박해있고 (일본인이) 활발히 벌목작업을 한다”며 일본인의 불법적인 활동을 기록하였다.³³⁾

30)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8.

31)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9.

32)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1.

33)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9.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조선정부의 이주정책과 실행과정을 기록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인이 울릉도를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6가구의 조선인을 파견하여 개척하였다. 일본인은 울릉도에 20여년 전에 불법적으로 섬에 들어왔다. 조선정부는 일본인의 불법 거주를 의식하고 울릉도 개척을 실행하였다. 1902년 한국인의 이주자만 300명이었다. 한국정부는 한인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1902년까지 면세정책을 실행했지만 1903년부터 “조선 니켈화로 2달러 60센트”(일본 은화로 1달러 30센트)에 상당하는 연간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기록하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일본 집보다 크기가 조금 작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거주 환경을 통해 일본인의 불법 거주 이유를 지적하였다. “일본인이 돈을 벌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섬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인들의 마을에 거주하여 다른 일본인들과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인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확보(確保)하기 위해서 울릉도 거주 한국인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하였다.³⁴⁾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잠수복을 준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전복을 잡았다. 일본인은 경제적 활동 중 삼나무와 잣나무의 벌목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일본인은 삼림을 벌목한 다음 주로 계곡을 통해 원목을 보내고, 항구에 정박한 배를 통해서 일본

34)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0.

에 수송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본인은 목재를 일본에 수송하는 항구로 도동을 주로 이용하였다.³⁵⁾

레베제프는 목재 밀반출의 주요 항구인 도동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 경찰이 울릉도 관련 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일본인은 울릉도 도동항에 자국의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어서 2중 권력체제가 존재하였다. 법률적으로 조선의 공직자가 권력을 행사하지만, 사실상 일본 경찰이 모든 일에 관여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을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동양의 두 민족 간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을 포착하였다.

울릉도에 도착한 러시아탐사단은 울릉도에 임시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15명의 한국인을 고용하였다. 마침 그때 일본인이 나타나자 고용된 한국인이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나타난 일본인은 러시아탐사단의 일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돌아가는 15명의 한국인에게 러시아탐사단에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일본인 중 1명은 “일본 경찰관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러시아탐사단에게 제안하였다.

울릉도 거주 한국인은 일본인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며 두려워하였다. 레베제프는 “러시아탐사단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결정했다”고 기록하였다. 러시아탐사단은 “섬에서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 러시아인도 일본인의 도움과 관리를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러시아탐사단은 “수많은 짐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35)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1.

일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국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인의 도움을 거절하였다. 결국 러시아탐사단은 일본인의 지원 제안을 거절하였다.³⁶⁾

레베제프는 일본인의 불법 벌목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자신들의 벌목작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일본인은 러시아탐사단이 울릉도를 방문하자 그 순간부터 울릉도의 벌목작업을 중단하였다. 레베제프는 “나무토막과 나무줄기에 남아있는 도끼의 흔적들만 일본인들의 약탈행위를 입증하였다”며 울릉도에서 일본인 불법 벌목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해마다 약탈자 일본인이 증가하면서 벌목된 산림 면적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울릉도의 사용권을 소유했지만 황폐한 불모지로 바뀐 산봉과 암벽만 보유하게 될 것이다.”³⁷⁾

러시아탐사단이 일본인의 도움을 거절한지 이틀이 지나자, 울릉도 거주 한국인이 접근하였다. 레베제프는 한국인이 “처음에는 식량과 관련된 부탁을 들어주다 나중에는 신뢰가 구축되면서 일본인들과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털어냈다”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일본인은 한국인의 인종을 업신여겼고 무장한 일본인 2-3명이 한국인의 집에 나타나서 한인들의 살림을 자신의 물건처럼 다루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일을 시키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일본산 상품으로 대체하며 착취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인의 현물 지급 때문에 돈이 유통되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였다.³⁸⁾

36)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2.

37)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4.

38)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3.

레베제프에 따르면 “러시아탐사단은 일본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극단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일본인은 총알이 없어서 한국인과 맞서지 못했다. 일본인은 한국인의 집을 지나갈 때 한국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그만큼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하였다.³⁹⁾

4. 맺음말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가 지휘한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Якут)는 1903년 8월 31일 블라디보스톡 출발, 9월 2일 울릉도 도착, 9월 3일 울릉도 남양포(南陽浦) 상륙, 9월 10일 도동에서 심홍택 면담 직후 출항하였다. 울릉도를 조사하고 심홍택을 면담한 인물은 러시아 장교가 2인, 통역이 1인, 수병이 16명이었다. 통역관은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였고, 군의관은 메르꾸쉐프(В.А. Меркушев)였다.

러시아탐사단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어떤 관계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극단적인 대립을 생생히 목격하였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일본인은 총알이 없어서 한국인과 맞서지 못했다. 일본인은 한국인의 집을 지나갈 때 한국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그만큼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하였다.

39)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3.

레베제프는 러시아탐사단이 울릉도 거주 한국인에게 호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인은 “가장 좋은 식량을 공급해 주었고, 일을 철저히 도와 주었고, 편할 때 돈을 지불해도 된다”며 러시아탐사단에게 친절히 대했다. 레베제프는 한국인이 러시아탐사단을 신뢰한다는 일화를 소개하였다. 러시아탐사대의 출발 전날 한국인은 메르꾸셰프(В.А. Меркушев)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메르꾸셰프는 다리에 누(癭, 부스럼 fistula)가 생긴 환자를 진찰하고 환부를 소독해 주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상업적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외교관이 극동에서 영향력강화를 위해 노력해 얻은 성과인 울릉도삼림채벌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울릉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러시아가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러시아 기업인들은 삼림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였다. 레베제프는 “일본과 중국이 목재 판매시장이고, 러시아와 만주도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한국 현지에서 저렴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현재 판매 시장 및 인력 확보가 가능하지만 러시아 자본가가 “지나친 소극적인 자세와 틀에 박힌 생활에 안주하는 자세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레베제프는 “러시아인이 전쟁에서만 강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 속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터처럼 경제 현장에서도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⁰⁾

40)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С.173-174.

울릉도에 관한 러시아탐사는 러시아의 경제적인 이권의 확장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 해군제독 알렉세예프(Алексеев Е.И., 1843-1918)는 이미 1896년 1월 한국의 주요 항구를 조사하면서 동해안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⁴¹⁾ 더구나 알렉세예프는 1903년 9월 20일 러일전쟁 관련 군사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만약 일본이 제물포, 진남포 혹은 압록강 하구로 상륙할 경우에는 해안에서 진영을 펼치는 상륙부대에 대해 공개적인 무력시위를 개시한다.”⁴²⁾ 러시아 해군은 일본이 동해를 통한 한국 상륙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였고, 그 중 동해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해상거점으로 울릉도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1896년 러시아는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고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적인 벌목에 항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해군은 울릉도의 삼림과 지형을 상세히 조사하고, 기뢰의 설치장소까지 파악하였다. 이것은 야꾸트호를 비롯한 러시아함정이 러일전쟁을 예상하고 동해에서 일본과의 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원고투고일 : 2018. 8. 1, 심사수정일 : 2018. 11. 15,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러시아 군 수송선, 야꾸트호, 울릉도, 까르쎬프 대위, 통역관 레베제프, 알렉세예프 제독, 심흥택

41)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1896.1.21.

42) ГАРФ. Ф.543. Оп.1. Д.186. ЛЛ.1-146.

〈참 고 문 헌〉

- 김호동, 「개항기 울도군수의 행적」, 『독도연구』 19호 (경산: 영남대독도연구소, 2015) : 7-50
-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논문 (분당: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 까를로 로제티, 서울학연구소 역,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 숲과나무, 1996)
- 『독립신문』, 1899.11.14.
- 『帝國新聞』, 1899.11.27.
- 『帝國新聞』, 1902.3.1.
- 『帝國新聞』, 1899.12.8.
- 『皇城新聞』, 1899.12.5.
- 『皇城新聞』, 1900.3.10.
- 『皇城新聞』, 1899.12.25.
- 『皇城新聞』, 1903.11.17.
- 『各觀察道案』,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 一一三(奎章閣, 7990-1)
- 報告書第六號, 光武七年(1903)十一月二十八日, 「江原道來去案」第一冊, 『各司
膽錄』 28, 江原道篇 2, 江原道觀察使金禎根一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
時署理議政府贊政宮內府特進官李夏榮(奎17985)
- 交涉局, 光武七年十二月一日, 『外部日記』 7冊, 入直 李範奭 金瑞圭(奎17841)
- 交涉局, 光武七年十二月十一日, 『外部日記』 7冊, 入直 丁大有 方大榮(奎17841)
- 照會 第十八號, 光武七年(1903)十二月五日, 「內部來去文」 15, 議政府贊政內部
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金奎弘一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
特進官 李夏榮.
- 『駐韓日本公使館記錄』(20), 1903년 10월 7일, 各館來信 (7) 韓第41號 「러시아
수병의鬱陵島 상륙에 관한 건」, 在釜山 領事 幣原喜重郎一特命全權
公使 林權助.
-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 ГАРФ. ф.543. Оп.1. Д.186. ЛЛ.1-146.
- Глушков В.В. На островах уллындо и докдо в восточном м
оре. М., 2018.

Лебедев Е. Остров Дажелет.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а. XI. Владивосток. 1904.

<Abstract>

Investigation and contents for Ulleungdo of Russian military transport ship Yakut in 1903

Kim, Young-soo

A Russian military transport ship called Yakut (Якут), led by Captain Kartsev(В.А. Карцев), departed from Vladivostok on August 31, 1903, arrived on Ulleungdo on September 2, landed on Namyangpo in Ulleungdo on September 3. And departed immediately after his interview with Shim Heung-taek in Dodong on September 10. Two Russian officers, one interpreter and 16 Marines were interviewed by Shim Heung Taek. The interpreter was Lebedev (Е. Лебедев), and the military surgeon was Mekuchev(В.А. Меркушев).

The Russian explorer refused to help the Japanese on Ulleungdo and tried not to have any relationship. In the process, Lebedev vividly witnessed the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Koreans living in Ulleungdo and Japanese. According to Lebedev, the Japanese did not have a bullet and could not face the Koreans. When the Japanese passed through the house of the Koreans, they turned their heads to the other side without facing the Koreans.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Koreans living in Ulleungdo and Japanese people were serious.

The Russian exploration of Ulleungdo was conducted not only to expand economic interests in Russia but also to prepare for possible future war with Japan. Russian Navy Admiral Alekseyev (Е.И. Алексеев) already paid attention to Ulleungdo as a strategic base on the east coast, examining major ports in Korea in January 1896. Moreover, Alekseyev presented the military strategy for the Russo-Japanese War on September 20, 1903. If Japan lands at Jemulpo or the Yalu

River, it will open an open military demonstration against the coastal fighters. The Russian Navy prepared a strategy for Japan to land in Korea through the East Sea, recognizing the value of Ulleungdo as an important maritime base in Russia from the East Sea.

Key words : Russian military transport ship, Yakut, Ulleungdo, Captain Kartsev, interpreter Lebedev, Admiral Alekseyev, Shim Heung-taek

